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MEDICAL GI-GONG
Vol.11. No.1. 2009.

의료기공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송택진* · 이민규* · 신종훈* · 박재수*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A Questionnaire Analysis about the Attitude toward Medical gigong

Objective :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korean medicine and the attitude toward medical gigong among common people.

Methods : Randomly selected 297 peopl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We performed this survey with 13 items on the Questionnaire

Results : 13.1% of respondents knew qigong training, and 7.1% of respondents knew medical qigong. Most respondents knew one or more terms of qigong. Among them, the order was known as meridian, danjeon, sojucheon. 57.6% of respondents had a mind to be in a treatment of medical qigong. And 45.7% of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harmless of medical gigong. However, 41% were unsatisfied with the low effect of the treatment.

Conclusions : Medical gigong treatment need to develop an explanatory model which based on static study. And technically advanced public relations are needed.

Key word : Medical gigong, Questionnaire, Medical qigong

1. 緒論

氣는 한의학에서 必須 不可缺한 用語이고, 氣를 排除하고는 한의학의 어떤 이론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氣는 自然의 氣와 人體의 氣로 크게 나눌 수 있고, 人間은 呼吸 飲食攝取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自然의 氣와 交流를 하고 있다. 자연에서는 풍한서습조화의 六氣가 있어 氣候의 정상적 변화를 나타내 준다. 이 六氣가 그 均衡을 잃고 太過 혹은 不足하게 되면 六淫이라 칭해진다. 六淫은 인체에 질병은 惹起시킬 수 있는데, <素問 平熱病論篇>의 ‘邪之所湊 基氣必虛’, <素問遺篇 刺法論篇>의 ‘正氣存內 邪不可干’ 등의 문구에서 보면, 인체의 면역력의 존재여부에 따라 발병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질병발생의 기전은 사기와 정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정기가 질병발생의 관건이 된다.

또한, ‘痛卽不通 不通卽痛’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체 내 기운이 충

분하여도 그 흐름이 원활치 않아 발병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하면, 氣는 人體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의 총칭으로, 經絡系統을 따라서 몸 전체에 운행되고, 안으로는 臟腑에 통하고 밖으로는 四肢關節에 이르러, 筋肉 臟腑를 온양하고 筋骨皮毛를 윤택하게 하며 升降개합하고 주리를 튼튼하게 하여 外邪에 대항한다. 氣라고 하는 것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인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作用을 하는 것이다.

이 氣를 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氣功이라고 한다. 한의학 서적 중 기공과 관련된 내용은 황제내경에서부터 기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古代醫書에는 기공이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고, 도인양생위주로 나와 있다. 또한 도가서적이나 역사서에는 外氣治療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다. 의료기공은 의학과 기공의 결합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한의학적 진단 치료의 기초위에서 인체의 기본 구성요소인 氣를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摸索해 본 것이다.

韓醫學과 氣功의 결합이 醫療氣功 이라고 달리 칭해지지만, 기공요법의 內氣療法분야는 양생이라는 韓醫學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기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침치료나 推拿治療 심지어는 약물치료에서도 氣가 사용되어 왔다. 다만 醫者가 자신의 몸을 보호해가면서 意念을 사용해 더욱 강한 기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의료기공이라고 칭하는 것이다.¹⁾

장 등²⁾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공관련 논문들의 Review 는 의료기공이 각종 종양이나 만성질환에 있어서 상당한 유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증상에만 국한되어 유효한 다른 비주류의학과는 다르게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공은 인체의 건강체계의 균형과 질병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최근 中國과 美國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氣功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강화해 疾病을 豫防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밝혀졌다.³⁾

최 등⁴⁾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들의 기공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공은 韓醫師의 專門的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醫療人이 아닌 사설 단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用語의 난해함과 의료 기공을 이용하는 한의원들의 접근성문제로 인하여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령별, 거주지, 종교별로 의료기공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이 분석 자료에 따라 향후 의료기공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2. 對象 및 方法

2010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무작위로

1)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의료기공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998;2(2)145-174.

2) 장성진, 안훈모, 박은정 : 의료기공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3;7(1)1-30.

3) 한방재활의학과학회 : 한방 재활의학, 군자출판사, 2007;373.

4) 최은경, 박승정, 이기남 : 한국 기공 단체의 현황,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2;6(1)1-49.

뽑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공에 대한 13가지 항목의 설문에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한 총 297부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의료기공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묻는 예서는 기공수련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고, 기공 용어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으며 의료기공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친밀도와 의료기공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공의 발전방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의료기공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발전과제에 대해 질문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중 응답형 문항은 다중응답분석을 하였고, 설문의 문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때문에 각 문항마다 총 응답자수에 차이가 난다. 설문 조사 문항 작성 및 결과 분석에는 주 등⁵⁾, 신 등⁶⁾, 용 등⁷⁾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였다.

- 5) 주창엽, 허대석, 한동하,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 알레르기 질환 및 한방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4)565-573.
- 6) 신현규, 조경숙, 최선미 : 양방 질병명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6)864-871.
- 7) 용형순, 고성규 : 뇌졸중 전조증상으로

3. 結果

조사 대상의 연령은 10대 에서 70대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32세 ± 15 였다. (Table 1)

총 297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168 명으로 56.6%, 여자는 129 명으로 43.4 % 였다. (Table 2)

연령	빈도 [명]	퍼센트 [%]
10대	3	1 [%]
20대	147	49.5 [%]
30대	54	18.2 [%]
40대	24	8.1 [%]
50대	33	11.1 [%]
60대	21	7.1 [%]
70대	15	5.1 [%]
이상		
합계	297	100 [%]

Table 1. 연령별 분포도

	여성	남성	total
빈도 [명]	168 명	129 명	297 명
퍼센트[%]	56.6 %	43.4 %	100 %

Table 2. 남녀 성비 분포도

1. 기공수련에 대한 인식

서의 현훈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1)135-145.

‘기공 수련을 알고 있는가?’, ‘의료 기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로 질문하여 기공수련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자는 297명 중 39명으로 13.1%, 의료기공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한 자는 297명 중 21명으로 7.1%였다.(Table 3,4)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잘 알고 있다	39	13.1 [%]
이름은 들어보았다	168	56.6 [%]
잘 모르겠다	90	30.3 [%]
합계	297	100 [%]

Table 3. 기공 수련에 대한 인지도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잘 알고있다	21	7.1 [%]
이름은 들어보았다	108	36.4 [%]
잘 모르겠다	168	56.6 [%]
합계	297	100 [%]

Table 4. 의료 기공에 대한 인지도

또한, ‘기공 수련 단체를 몇 개나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가 297명 중 52.5%인 1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에는 297명 중 123명으로 ‘한 가지~ 세 가지’고 답한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았다.(Table 5)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아는 단체 없음	156	52.5 [%]
1가지~3가지	123	41.4 [%]
3가지~5가지	18	6.1 [%]
합계	297	100 [%]

Table 5. 기공 수련 단체에 대한 인지도

2. 기공 용어에 대한 인식

기공 용어 중 ‘단전, 소주천, 적취, 경락’ 중에 들어 보았거나 친숙한 단어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는 경락이 총 응답 501건 중 201건으로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단전, 적취, 소주천의 순이었었다. ‘없다’는 답변도 501건 중 27건으로 5.4%를 차지하였다.(Table 6)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단전	189	37.7 [%]
소주천	33	6.6 [%]
경락	201	40.1 [%]
적취	51	10.2 [%]
없음	27	5.4 [%]
합계	501	100 [%]

Table 6. 기공 용어에 대한 인지도

1개 이하로 응답한 경우가 168명, 2개가 68명, 3개 44명, 4개 18명이었다. 기공 용어의 선택에는

김 등의 연구⁸⁾, 이 등의 연구⁹⁾를 검토한 결과에 따랐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氣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친숙하며 호감이 든다’는 답변이 297명 중 161명으로 54.5%, ‘친숙하나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이 297명 중 54명으로 18.2%, ‘생소하지만 호감이 든다’는 답변이 297명 중 57명으로 19.2%, ‘생소하며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이 297명 중 0명으로 0%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97명 중 24명으로 8.1%였다. (Table 7)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친숙하며 호감이 든다	161	54.5 [%]
친숙하나 거부감이 든다	54	18.2 [%]
생소하지만 호감이 든다	57	19.2 [%]
생소하며 거부감이 든다	0	0 [%]
잘 모르겠다	24	8.1 [%]
합계	297	100 [%]

Table 7. 氣에 대한 인식

3.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친밀도

8) 김경환, 윤종화, 김갑성 : 경락기공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9;16(2)199-232.

9) 이정원, 김경철, 이용태 : 한국 기공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神仙家를 중심으로 본 기공의 기원에 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1-7.

‘침, 부항, 수기 등의 한의학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1회 이상 받은 적 있다’가 297명 중 186명으로 62.6%였으며 가장 많았다. ‘월 1회 이상 자주 받는다’가 297명 중 84명으로 28.3%, ‘없다’가 297명 중 27명으로 9.1%였다. (Table 8)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월 1회 이상(자주)	84	28.3 [%]
1회 이상 받아 본 적 있음	186	62.6 [%]
치료 경험 없음	27	9.1 [%]
합계	297	100 [%]

Table 8. 한의학적 치료 이용 빈도

치료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 중 치료(시술)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270명 중 96.7%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시술업소는 270명 중 3.3%였다. ‘자주 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의 경우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84명 중 84명으로 100%였으며, 1회 이상 받는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186명 중 177명으로 95.2%였다. (Table 9)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한의원 및 한방병원	월 1회	84	96.7 [%]
	이상	261	
	생애 1회	177	3.3 [%]
	이상	9	
민간 시술 업소	월 1회	0	3.3 [%]
	이상	9	
합계		270	100 [%]

Table 9. 치료(시술) 장소에 대한 설문

4. 의료기공에 대한 선호도

‘향후에 의료 기공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예’가 297명 중 171명으로 57.6%였다. ‘아니오’란 답변은 297명 중 39명으로 13.1%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97명 중 87명으로 29.3%였다. 연령별 선호도는 10대의 경우 3명중 3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100%였으며, 20대의 경우 147명 중 78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53.1%, 30대의 경우 54명 중 24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44.4%, 40대의 경우 24명 중 18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75%, 50대의 경우 33명 중 30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90.9%, 60대의 경우 21명 중 9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42.9%, 70

대 이상의 경우 15명 중 9명이 ‘예’라고 답변하여 60.0%였다. (Table 10)

‘의료기공의 주체자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한의사가 297명 중 201 명으로 67.7%, 기공사가 297명 중 66명으로 22.2%였다. 기타의견으로는 ‘기공을 수련한 한의사’가 4명이 있었고 다른 의견들도 있었다. (Table 11)

‘의료 기공의 장점은?’이라는 질문에는 ‘인체에 무해한 치료법이 다’가 전체 응답 315건 중 144건으로 45.7%, ‘체질 개선을 한다’가 315 건 중 54건으로 17.1%, ‘난치 질환에 효과가 좋다’가 39건으로 12.4%, ‘없음’이 48건으로 15.2%, 기타 의견이 30건으로 9.5%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 ‘잘 모르겠다’가 5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약물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인체 친화적인 치료인 것 같다’ 등이 있었다.(Table 12)

‘의료 기공의 단점은?’이라는 질문에는 ‘치료비용이 비싸다’가 315건 중 54건으로 17.1% ,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가 129

답변	있다	없다	모르겠다	총계
10대	3(100%)	0	0	3
20대	78(53.1%)	18(12.2%)	51(34.7%)	147
30대	24(44.4%)	6(11.1%)	24(44.4%)	54
40대	18(75%)	6(25%)	0	24
50대	30(90.9%)	0	3(9.1%)	33
60대	9(42.9%)	6(28.6%)	6(28.6%)	21
70대 이상	9(60%)	3(20%)	3(20%)	15
합계	171(57.6%)	39(13.1%)	87(29.3%)	297

Table 10. 향후 의료 기공을 받아볼 의향

답변	한의사	기공사	기타의견	총계
중졸 이하	21(77.8%)	6(22.2%)	0	27
고졸 이하	42(73.7%)	12(21.1%)	3(5.3%)	57
대졸 이상	138(64.8%)	48(22.5%)	27(12.7%)	213
합계	201(67.7%)	66(22.2%)	30(10.1%)	297

Table 11. 의료기공의 주체자에 대한 의견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인체에 무해한 치료법이다	144	45.7 [%]
난치 질환에 효과가 좋다	39	12.4 [%]
체질개선을 한다	54	17.1 [%]
없음	48	15.2 [%]
기타의견	30	9.5 [%]
합계	315	100 [%]

Table 12. 의료기공의 장점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치료비용이 비싸다	54	17.1 [%]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다	129	41 [%]
한의사의 설명이 어렵다	18	5.7 [%]
없음	72	22.9 [%]
기타의견	42	13.3 [%]
합계	315	100 [%]

Table 13. 의료기공의 단점

건으로 41%, ‘한의사의 설명이 너무 어렵다’가 18건으로 5.7%, ‘없음’이 72건으로 22.9%였다. 기타 의견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근거가 없다.’, ‘무엇인지 잘 몰라서 장단점을 모르겠다.’, ‘생소하고 미신이라 여겨져 접근하기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바라보기

엔 어려운 치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치료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등이 있었다.(Table 13)

5. 비용 책정 및 의료기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

수기 치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적절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1만원~2만원이 297명 중 93명으로 31.3%로 가장 많았고, 5천원~1만원이 297명 중 90명으로 30.3%로 매우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잘 모르겠

다.’, ‘효과와 지속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부위 당 수가를 매겨야 하는 근거가 없다’, ‘치료인의 손실에 따른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다면 2만원~3만원이 적당’, ‘시술자의 수련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 등이 있었다. (Table 14)

‘향후 의료 기공의 대중화를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건강보험 수가 책정을 통한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가 가장 많았으며 315건 중 129건으로 41%, 환자 본인 부담금의 경감이 54건으로 17.1%였다. 무면허 시술의 근절이 18건으로 5.7%였다. 기타 의

답변	5천원~1만원	1만원~2만원	2만원~3만원	3만원~4만원	기타의견	총계
10대	3(100%)	0	0	0	0	3
20대	27(18.4%)	48(32.7%)	39(26.5%)	9(6.1%)	24(16.4%)	147
30대	18(33.3%)	24(44.4%)	9(16.7%)	3(5.6%)	0	54
40대	12(50%)	0	12(50%)	0	0	24
50대	12(36.4%)	6(18.2%)	15(45.5%)	0	0	33
60대	9(42.9%)	9(42.9%)	3(14.3%)	0	0	21
70대	9(60%)	6(40%)	0	0	0	15
이상						
합계	90(30.3%)	93(31.3%)	78(26.3%)	12(4.0%)	24(8.1%)	297(100%)

Table 14. 의료기공 수가에 대한 의견

답변	빈도 [명]	퍼센트 [%]
건보 수가 책정 통한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	54	17.1 [%]
인터넷, 대중매체 통한 지속적인 홍보	129	41 [%]
무면허 시술(짚질방, 목욕탕 등)의 근절	18	5.7 [%]
없음	72	22.9 [%]
기타의견	42	13.3 [%]
합계	315	100 [%]

Table 22. 의료기공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

견으로는 ‘의료기공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근거 및 임상적 효용에 대한 근거 마련’, ‘정규 과정을 통한 의료기공의 합법화’, ‘확실한 치료 결과 및 예후에 대한 과학적 통계 구축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논문 등 학계의 인정을 받는다. 치료의 메커니즘을 밝히려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 대조 실험군을 통한 유의미한 통계 및 치료효과를 학술지에서 인정받아야 국민들도 신뢰할 수 있을 것’, ‘많은 한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치료효과를 인정받으려면 통계수치로 증명해야한다’, ‘한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모든 한의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닌 것 같다.’등이 있었다. (Table 15)

4. 考察

1. 기공수련에 대한 인식

총 조사인원 297명 중 기공수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명으로 13.1%, 의료 기공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명으로 7.1%였다. 조사

대상군의 평균 연령이 32세였으나, 전체 조사군 중 절반인 147명 (49.5%)이 20대였다. 20대에서 ‘기공수련과 의료기공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18.7%, 8.1%로 전반적으로 기공수련과 의료기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름은 들어보았다’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기공수련의 경우 약 70% 정도의 인지도를, 의료기공의 경우 43.5%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의료기관 보다는 개인 수련 단체 위주로 기공이 보급되어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기공수련 단체를 모르는 응답은 전체 297명 중 52.5%였고, 1가지~3가지 아는 경우는 41.4%, 3가지~5가지 아는 경우는 6.1%였다. 즉, 기공수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경우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며, 기공수련 단체의 경우도 대략 1~3곳의 유명한 단체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이는 이들 단체의 홍보가 현재 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추후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생각에서 재차 고찰해 보겠으나 의료 기공 분야에

있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다.

2. 기공 용어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에서의 기공에 대한 친숙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공 용어에 대한 질문에서는 중복을 포함하여 총 501건의 응답이 나왔으며 경락(40.1%), 단전(37.7%)이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반면에 적취, 소주천등의 용어는 각각 10.2%, 6.6%로 적게 나타났다. ‘아는 용어가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기공 용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공수련이나 의료 기공에 비해 이들 단어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전 호흡’이나 ‘경락 마사지’ 같은 비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게 한다. 곧, 의료 기공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두지 못한다면 의료 기공만의 특화된 인식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기(氣)에 대한 인식은 ‘친숙하며

호감이 든다’는 답변이 54.5%, ‘친숙하지만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이 18.2%, ‘생소하지만 호감이 든다’는 답변이 19.2%였으며 질문지에 선택 문항으로 기재된 ‘생소하며 거부감이 든다’는 답변은 없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1%였다. 즉, 기라는 개념에 대해 친숙하다고 느끼는 답변이 전체의 72.7%, 생소하다고 느끼는 답변이 19.2%였다. 호감이 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83.7%였으며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9.2%였다. 일반적인 교과과정에서 기에 대한 부분을 접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서적이거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50대 이상부터는 기에 대한 친밀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는데 이는 전통 문화와의 접근성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향후 교육 과정에서 기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라는 개념에 대한 친밀도는 더 떨어지고, 기공 수련이나 의료 기공의 보급이 어려워질 것이라 예

상된다.

3.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친밀도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친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월 1회 이상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297명 중 84명으로 28.3%, '1회 이상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297명 중 186명으로 62.6%였다.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는 9.1%였다. '치료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에 월 1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한의학 선호 계층'은 84명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한의원 및 한방 병원을 치료 장소로 대답하였다. 즉, '한의학 선호 계층'에서는 '한방 의료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듯하였다. 생애 1회 이상 한방 의료를 경험한 응답자는 186명으로 이들 중 177명(95.1%)는 '한방 의료 기관'을 치료 장소로, 9명(4.9%)는 민간 시술 업소를 시술 장소로 응답하였다. 즉, '한의학 선호 계층'이나 '1회 이상 이용한 응답자' 대부분이 '한방 의료 기관'을 한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다만 아

직까지도 근절되지 않는 민간 시술 업소에 대한 확실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의료기공에 대한 선호도

'향후에 의료 기공을 받아볼 의향이 있는 가'하는 질문을 통하여 의료 기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297명 중 57.6%인 17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13.1%인 39명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으며, 29.3%인 87명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의료 기공이 적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데이터를 제시하면 치료 의학으로서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한다. 특히나 20대, 30대의 경우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각각 12.2%, 11.1%로 50,60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4.6%, 44.4%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는 의료 기공이 적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근거와 임상적 데이터를 제시하면 치료 의학으로서의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한다. 이들 세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

용하는 세대이며 정보의 습득 능력 또한 이전 세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빠르기 때문에 의료 기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부를 적절하게 제공한다면 질환의 치료에 있어 의료기공을 이용하는 환자군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의료 기공의 인지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의료 기공에 대한 선호도는 꽤 높은 편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인들이 의료 기공에 대한 전문성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의료 기공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하는 문항으로 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 66.7%가 한의사를, 22.2%가 기공사를 선택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0.1%였으며 이 중에는 기공을 수련한 한의사라는 응답이 4명이 있었다. 즉, 의료 기공이라는 명칭에 있어 일반 시민들은 ‘의료’라는 단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방 의료 기관’과 ‘민간 시술업소’처럼 확고하게 차별화된 응답과는 달리 그 한의사가 의료기공에 대해 가지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의료 기공’이 기공을 이용한 의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의료 기공에 있어 한의사의 전문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였고, 대졸 이상에서 가장 낮게 판단하였는데, 이는 기공사에 대한 선호라기보다 기타 의견의 퍼센티지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의료 기공의 장단점을 질문한 결과, 장점으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45.7%) 단점으로는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41%) 즉, 일반인들의 인식은 의료기공이 인체에 비교적 해가 없으나,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에서 ‘기공이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에 받을 용기가 나지 않는다.’, ‘미신이라 믿어진다.’는 의견 역시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 기공이 전문적인 의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치료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는 것을 보여준다.

5. 비용 책정 및 의료기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

수기 치료에 있어 적정 비용을 묻는 질문에서는 연령 별로 응답이 달랐으나, 전체적으로는 1만원~2만원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31.3%), 5천원~1만원도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30.3%) 특히나 10대, 70대 이상 경제력이 떨어지는 계층과 40대, 50대의 경제력이 있는 계층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들 두 계층은 2만원~3만원을 적정 비용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목욕탕, 마사지실이나 기타 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마사지 비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비용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혹은 ‘정확한 치료 효과가 있다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에 의료 기공을 시술하게 되는 한의사에 대해서 일련의 교육과정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의료기공의 발전에 대한 답변은 매우 다채로웠다. 그 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힌 것이 홍보였으며(41%), 건강 보험 수가 책정을 통한 본인 부담금 경감(17.1%)이 뒤를 이었다. 없다는 의견도 22%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기공에 대한 인지도 자체를 높이는 것이 무척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타 의견으로 임상 치료에 있어 통계적 방법을 통한 치료율의 검증과 이론적 근거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의료 기공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치료율의 통계적 조사, 그 후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모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한의사의 전문적 영역같지가 않다.’, ‘보다 많은 한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에 한의대 정규 교육 과정 안에 의료 기공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많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공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홍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판단

이다.

5. 結論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의료기공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의료기공에 대한 인식, 의료기공에 대한 선호도와 의료기공의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전국 16개 시 도 총 297명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응답자의 13.1%가 '기공수련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7.1%가 '의료기공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였다.
2. 총 응답자의 94.6%가 한 개 이상의 기공용어를 들어봤으며, 이들 중 '경락', '단전', '소주천' 순이었다. 한의학에서 '氣'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72.7%가 친숙함을 27.3%가 생소함을 보였고 73.7%가 호감을 19.2%가 거부감을 보였다.
3. 총 응답자의 62.6%가 한의학적 치료를 경험해봤고 이들 중

23.8%가 월1회 이상 치료를 받으며 96.7%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답하였다.

4. 의료기공에 대한 선호도로 응답자의 57.6%가 향후에 의료기공을 받아볼 의향을 표현했다.
5. 의료기공의 주체자에 대한 질문에 '한의사'가 67.7%, '기공사'가 22.2%, '기공을 수련한 한의사'는 1.3%였다.
6. 의료기공의 장점은 '인체에 무해한 치료이다'가 45.7%, '체질개선을 한다'가 17.1%이다. 또한 의료기공의 단점으로 '치료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가 41%, '치료비용이 비싸다'가 17.1% 였다.
7. 수기치료의 비용으로 부위별 1~2만원이 31.3%, 5천원~1만원이 30.3%였다.
8. 향후 의료기공의 대중화를 위해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건강보험 수가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41%,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이 17.1%, '

무면허 시술의 근절'이 5.7%였다.

6. 參考文獻

1. 김경환, 윤종화, 김갑성 : 경락기공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9;16(2)199-232.
2. 신현규, 조경숙, 최선미 : 양방 질병명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15(6)864-871.
3. 용형순, 고성규 : 뇌졸중 전조증상으로서의 현훈에 대한 설문조사분석,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1)135-145.
4. 이은미, 박은정, 유창순 : 의료기공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998;2(2)145-174.
5. 이정원, 김경철, 이용태 : 한국 기공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神仙家를 중심으로 본 기공의 기원에 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4;18(1)1-7.
6. 장성진, 안훈모, 박은정 : 의료기공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3;7(1)1-30.
7. 주창엽, 허태석, 한동하, 정희재, 정승기, 이형구 : 알레르기 질환 및 한방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0;21(4)565-573.
8. 최은경, 박승정, 이기남 : 한국 기공단체의 현황,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2;6(1)1-49.
9. 한방재활의학과학회 : 한방 재활의학, 군자출판사, 2007;373.